



2만불 시대

중소기업이 일어납니다



중소기업청
브리핑

제1호 2003년 11월 28 (금) 공보담당관실 TEL.042-481-4329~32 / FAX.042-472-3264

구조조정 및 M&A 펀드 1,000억원 조성



기자브리핑 (11.13)

중소·벤처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중소·벤처기업간 M&A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1,000억원 규모(정부 400, 민간 600)의 펀드를 조성한다.

금번 1,000억원 규모의 구조조정 펀드는 기존의 구조조정 일반펀드이외에 전문펀드와 공공펀드라는 새로운 유형의 펀드를 블라인드(Blind) 방식으로 조성토록 한 것이 특징이다.

공공펀드는 중진공 주관하에 400억원 규모로 조성되며 중소기업에 전액 투자되며 비공개 중소기업위주로 구조조정을 지원한다. 구조조정전문회사(CRC) 업무집행조합원으로 KTB네트워크(KTB 11호)가 선정되었다.

전문펀드는 200억원 규모로 조성되며 비공개 중소·벤처기업 위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거나, 중소·벤처기업간 인수·합병(M&A) 등 전문적 분야에 투자금액의 60% 이상을 투자하게 되며 CRC 조합원으로 글로벌앤어스시에이츠(비공개, 밀레니엄 9호), 한국기술투자(M&A, KTIC 3호)가 선정되었다.

400억원으로 조성될 일반펀드도 총투자액의 60% 이상을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하여 투자되며 네오플렉스캐피탈(가버너스 1호), 밸류미트인베스트먼트(밸류미트 2호), 아이엠앤파트너스(IMM 7호) 등이 CRC조합원으로 선정되었다.

선정된 6개 CRC는 늦어도 금년 12월중순까지 정부 출자금 400억원을 토대로 연·기금 등 민간 투자 600억원 규모를 유치, 1,000억원 수준의 구조조정 및 M&A펀드를 결성하여 향후 3~5년간 중소·벤처기업의 구조조정 및 M&A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민간자본의 유치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펀드 운영 제도를 대폭 개선하였다.

▶ 펀드의 조성을 촉진하고 운용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정출자분 이상을 비공개, 지방, 부품·소재 및 화의 등 특정 목적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였고

▶ 펀드 조성이 용이하도록 전문 및 공공펀드의 경우 재정자금의 출자비율을 기존의 최대 4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하였으며

▶ 시중금리의 하향추이를 반영하여 업무집행조합원(CRC)의 성과보수에 대한 기준 수익률을 기존 15%에서 최하 8%로 하향 조정하고 전문 및 공공펀드의 업무집행조합원(CRC)은 초과수익의 최대 30%까지 성과보수를 가져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였다.

▶ 민간자본의 펀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 및 공공 펀드에

대하여는 기준수익률 8%를 넘는 초과수익중 재정자금 출자분에 해당하는 수익의 50%를 민간투자자에 재배분토록 하였으며

▶ CRC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CRC 의무출자비율을 현행 5%에서 재정출자비율에 따라 10%까지로 상향조정하였다.

▶ 또한, 조합재산의 건전성 및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계감사법인을 지정토록 하고

회계의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인 ERP체제를 도입키로 하였다.

중기청은 2000년이후 그동안 23개 약 3,700억원의 구조조정 펀드를 결성하여 총 77개사의 구조조정대상 기업에 3,200억원을 투자하여 구조조정 지원 및 M&A를 완료하였거나 추진중에 있다.

▶ 경영지원국 자금지원과 (042-481-4377)

PL수준 평가제도 도입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PL) 대응활동에 대한 적절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는 『PL수준 평가제도』가 본격 도입된다.

PL수준 평가결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동종 기업간 보험료, 대출금리, 판매지원 등을 우대하는 지원제도와 연계하여 기업 스스로 자발적인 PL 대응활동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중기청에서는 금년 10월 (사)한국PL협회를 통해 총 15종의 업종별·유형별 PL수준 평가모델 개발

을 이미 완료하였으며 본격적인 평가제도 실시에 앞서 제도도입에 따른 초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제도 정착을 위하여 금년 12월중에 PL수준 평가 시험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험사업 참가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업종 및 업태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업체중 약 50개 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시험사업 참가업체에 대하여는 평가결과에 따라 예비등급이 부여되고, 평가결과보고서에 의하여

구체적인 개선항목 및 방향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험사업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11.29(토)까지 소정의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사)한국PL협회 [02-2000-5715, www.pl21.org]로 문의하면 된다.

▶ 중소기업정책국 정책총괄과 (02-509-7033/4)



2003 대한민국 벤처창업대전 성황리 개최



미래 청년 벤처기업가들의 우수한 창업아이템과 기술이 전시되는 국내 최대 창업행사인 “2003 대한민국 벤처창업대전”이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여의도 중소기업전시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창의적인 학생·교수·연구원 및 창업기업들의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발굴·포상하여 창업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신기술 벤처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기청이 주최하고 중기협중앙회, 중진공, 기술신보, 창업보육협회, 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 및 전국대학생 창업동아리연합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였다.

이번 창업기술의 전시에는 지난 9월 8일~20일까지 신청된 700여팀에 대하여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서류 및 발표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창업기술들로 학생부문 150팀, 일반부문

106팀 등 총 256개팀이 참가하였다.

출품작에 대한 심사결과 학생부문 대상은 ‘초소형 무인 항공기’를 출품한 건국대 황희철군이, 일반부문 대상은 ‘다목적 프린터’를 개발하여 출품한 (주)와이처(대표:김영상)가 각각 차지하여 중기청장 표창 및 2천만원의 부상을 받았다

또한 창업지원 우수대학으로 인하대, 한국산업기술대, 공주대가 선정되었으며, 창업지원 유공자

(8명), 우수창업보육센터(10개), 우수상담회사(5개)에 대한 유공자 포상이 있었다.

이번에 창업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참가자들은 “벤처·창업자금 신용지원”, “창업보육센터 우선입주” 등 창업기술을 실질적인 사업화로 연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앞으로 동 행사가 명실상부한 “종합창업행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행사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포상훈격 격상 및 입상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화 연계지원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중기청은 밝혔다.

▶ 벤처기업국 창업지원과 (042-481-4377)



중소제조업 바닥 탈출 조짐

9월중 중소기업 경기기가 7월부터 3개월 연속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경기선행지수도 전월수준을 이어가는 등 경기하락국면이 확실하게 마감된 것으로 보인다.



중기청이 발표한 『최근 중소기업 경기국면 분석과 전망』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경기흐름을 나타내는 『중소제조업 경기국면지수』는 9월중 100.3을 기록하여 전월(100.3) 수준을 유지하였는데 이는 노동투입량을 제외한 중소기업 생산, 출하, 가동율 등이 전월보다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중소제조업 경영환경지수도 12월에는 100.2을 나타내는 97.7을 나타내 전월(97.8)에 비등, 월간 예측치로는 처음으로 미세하게 하락은 하였지만 10월 예측치가 상승세로 자금사정지수가 하락한 것을 반전되어 경기흐름의 전환점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중소제조업 경기선행지수인 『경영환경지수』를 활용하여 향후 12월까지의 중소기업 경기국면지수를 예측한 결과, 10월 100.4, 11월 100.3,

따라서 중소기업 경기는 향후 소폭의 등락세를 보이면서 회복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 중소기업정책국 조사평가과 (02-509-7040)

해외시장개척 지원 대폭 확대

내년도에는 전문업종 중심의 해외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파견에 70억원을 투입, 120회를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신규 수출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그동안 사업성과가 우수하였고, 수출업계의 지원확대 요구가 가장 많았던 것을 고려하여 금년도(98회)보다 17억원, 30회 이상으로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업체당 지원한도도 금년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해외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사업은 중소기업 관련 조합·단체가 주관기관이 되어 참여업체를 모집하면 정부재정에서 파견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해외전시회는 부스임차료, 장치비 및 전시물품 운송료 등을 지원하며 시장개척단은

바이어 알선, 현지 시장조사, 통역 등 공통경비 전액을 지원한다

모집공고 기간은 '03. 11. 21~12. 4(2주간)이며, 상세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rba.go.kr) 및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참조하면 된다.

▶ 경영지원국 판로지원과 (042-481-4467)

2003년 중소기업 신지식인 선정

중기청은 중소기업인중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가운데 새로운 발상으로 경영혁신과 신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중소기업 CEO 20명을 『2003년도 중소기업 신지식인』으로 선정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중소기업신지식인 20명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중소기업청의 추천을 받은 58명의 후보자들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였으며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주)손오공 대표이사 최신규(47세) : 우리나라 고유의 정신세계를 담은 창작캐릭터를 개발에 주력하여 탑블레이드, 하얀마음 백구 등 다양한 콘텐츠를 보유



▶(주)이코바이오 대표이사 김광윤(39세) : 항생제남용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학연 공동연구로 합성항생물질을 대체할 신개념 천연항생물질을 개발

▶(주)대호 대표이사 신순옥(44세): '88년부터 폐기물의 재활용을 시도하여 폐발포우레탄을 이용한 한국 고유의 온돌방식 경량단열콘크리트를 개발

▶보림필방 문상호(51세) : 글씨까지 컴퓨터에 의존하는 시대에 전통기능을 활용하여 죽필(대나무로 만든 붓), 고필(벼로 만든 붓)을 제작 · 보급

▶(주)다린 대표이사 김정수(57세) : 오존층 파괴의 주범인 프레온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공기를 압축하여 분사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환경보호, 수입대체 및 수출증대 효과를 제고

▶(주)삼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고재섭(51세) : 소각로의 분진(미세먼지) 및 다이옥신 저감장치를 개발한 소각설비 및 환경설비 전문업체

▶짚돌이닷컴 김상호(34세) :

전국 240여 할인점의 가격정보를 통합, 지역별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한 할인점 가격비교/정보공유 사이트를 운영



▶ (주)보경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오경희(49세) : 에너지 절약형 다기능 블록/벽돌을 개발한 우리나라 최초 여성 보일러 기능장

中小企業 新知識人은 1998년부터 매년 50명씩 4년 동안 총200명이 선정되어 『사단법인중소기업신지식인협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펴고 있으며

중기청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신지식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들의 성공사례를 모은 '중소기업신지식인 혁신사례집'을 발간·배포하여 중소기업계에 전파함과 아울러 신지식인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행정법무담당관실
(042-481-4377)

중소기업정보화 촉진전략 공청회 개최

'중소기업정보화 촉진전략(안)'에 대해 각계의 요구를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공청회가 11. 19(수) 10:00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그간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이 준비해온 정보화 촉진전략(안)'에 대한 기본 구상의 주요내

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하여 각계의 토론자 및 참석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 정보화촉진 추진 전략을 확정할 방침이다

발표된 촉진전략(안)에는 중소기업 정보화 수준을 "현재 업무효율화단계에서

지식정보화단계"로의 진입을 목표로 중소기업 정보화촉진 장기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하고,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에 대한 업무 조정과 유관기관간 역할 분담을 통한 중복지원 방지, 효율적인 지원체제 구축을 담고 있다.

▶ **경영지원국 정보화 지원과 (042-481-4401)**